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2018 가을 제14호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2018 가을 제14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제14호



Contents

2018 가을 제14호

기획 평화와 통일	04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 맛보기
	08	통일과 평화의 시대, 그 이후를 준비하다.
	12	평화교육의 방향: 갈등해결 능력 함양과 비평화 교육 비판
	14	통일과 평화 세대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16	우리나라의 통일! 전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요
	20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 두빛나래
	22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4	이시우의 평화사진 '철망 앞에서의 사색'

특집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28	인터뷰-교복 입은 시민, 인천교육의 현재와 만나다
	32	포토스케치-주민직선 제3대 인천광역시교육감 취임
	36	삶의 힘이 자라는 7가지 교육약속
	40	이런 인천교육을 바란다. '소통도시락(樂)'

캠페인	42	폭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평화는 시작된다.
-----	----	------------------------

학교그리기	44	제8화 라떼파파
-------	----	----------

공감	46	비경쟁 토론의 중요성과 사고의 힘
----	----	--------------------

정보	48	인천교육 2학기 주요 행사
----	----	----------------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
기획 및 편집 김민경, 강경은, 김진철
사 진 이주한, 서주희, 이예슬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 화 032-420-8125
편집디자인·인쇄 중앙프린텍(T. 032-883-8195)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 2018-0064



Cover Story

오늘을 살며 미래를 만드는 인천교육

인천시교육청 학생기자 5명과 인터뷰한
도성훈 교육감

사진 이예슬 교육홍보팀



<< 인천교육소식지 바로보기

독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인천교육소식"(gongbo@ice.go.kr)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인천교육소식(http://www.ice.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기사,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통일 한국 맛보기

교육홍보팀 사진/이주한

학생의 목소리로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다.

7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교육청 원탁회의실에서 인천 학생 통일이야기 한마당이 열렸다.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평화통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통일에 대해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제고하고, 통일감수성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되었다.

초등학교 2팀, 중학교 2팀, 고등학교 4팀, 총 8팀이 참가하여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 맛보기'를 주제로 한 탐구과제 발표와 '통일 이후 남과 북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할까?'라는 주제로 월드카페식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통일 한 줄 말하기'로 학생의 입장에서 평화통일을 이야기해 보기도 했다. 이날 금상을 수상한 초등학교 '평화의 비둘기'(원당초), 중학교 '통일바라기'(인화여중), 고등학교 '콜로키엄'(연수여고)은 전국 학생 통일이야기 한마당에 참여하게 된다. 이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천원당초 5학년 박윤서, 지재민, 황태웅, 이승현, 지도교사 정혜란



<평화의 비둘기>

“사람이 먼저인 평화통일, 그웨잇!”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이산가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다.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 생긴 이산가족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우리들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없길 바라고, 역사에 남을 또 한 번의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통일 이후
남과 북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할까?

진로, 교육, 음식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변화가 많은 부분은 진로이다. 가이드와 군인, 노동자 직업군에서 하는 일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북한과 남한을 안내하는 가이드 직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군대를 가고, 직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새로운 업종들이 생길 것이다. 반공 및 방첩을 담당하거나 북한을 연구하는 일은 사라지고, 건축,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관련 업종이 발전할 것이다. 특수교사나 남북통일역사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교육에서는 과학이 발전하고 언어학이 신설될 것이며, 예술은 건축과 미술영역에서, 음악에서는 새로운 장르가 발전할 것이다. 음식에서도 남북의 음식 문화가 융합하여 색다르고 다양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화여중 2학년 정서윤, 허중경, 지도교사 신주연, 2학년 박서영, 마채영



<통일바라기>

“Welcome to DMZ”

DMZ는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교량과 문화 화합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DMZ의 생태·관광·문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 탐구하였다.

생태적 활용 방안으로 생물권 보존지역을 신청하고 공동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관광 활용 방안으로 컨테이너형 숙박시설을 방문객에게 제공, 생태캠프 추진, 유라시아 횡단 열차 길목으로 활용한다. 문화적 활용 방안으로 ‘Unified Tour’(통일) 3박 4일 투어, DMZ 궁예터 발굴을 제안한다. 그래서 DMZ는 평화의 상징이 될 공간으로 종전선언 이후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 이후
남과 북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할까?

에너지, 선박, 일자리 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DMZ의 역사,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면을 강조하며 관련 학술연구나 관광업이 성장할 것이다. 천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를 남북이 합동으로 연구하여 에너지 자립과 수출이 가능한 우리나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선박을 이용한 물류 이동에도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와서 동북아 물류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콜로키엄>

“뜻밖의 통일, 놀이로 통일 교육, 즐거움으로 하나 되자”

통일이 되지 못한 것은 의지의 박약이나 제도의 미비, 감정의 모자람이 아니다. 오히려 의지, 제도, 감정 등 모든 것이 넘쳐 흘러 과잉이기 때문이다. 과잉은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매몰시킨다. 오히려 분출할 곳을 찾아 어딘가를 충격에 빠지게 한다. 통일 교육에도 이런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다. 서로 티격태격하다가도 곧 하나의 놀이에 빠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저 당연한 듯 치부하고 관심 없었던 것이다. 무관심은 무시를 낳고 이는 현재의 통일교육을 재미없고 흘러가 버리는 것으로 만들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꾸준히 놀이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재미를 늘리고,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한다면 통일교육도 바꿀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통일 이후
남과 북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할까?



남북한의 인식이 가장 많이 변할 것이다. 관용, 용서, 화해, 협동의 4가지 인식 요소들이 사회 전반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통일도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변화는 교육, 경제, 외교,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올 것이며 새로운 문화 형성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배려하고 협력해야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연수여고 1학년 김은설, 2학년 유시은, 장수빈, 박예은, 지도교사 이은규



통일 한줄 말하기



통일은 ‘**갯난아기**’이다.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지만 언제나 사랑스럽고 마음에 담아두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마블링**’이다.

한 겹, 한 겹 합쳐지면 하나의 예술작품이 된다.



통일은 ‘**엽록체**’다.

식물을 성장시키는 엽록체처럼 우리나라를 성장시킬 것이다.



통일은 ‘**숙제**’이다.

이산가족과 우리 민족, 역사, 미래의 모두를 위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숙제이다.



통일은 ‘**수능**’이다.

엄청난 시간, 노력, 열정을 쏟아야 한다.



통일과 평화의 시대, 그 이후를 준비하다!

인천학생교육원 서사체험학습장과 양도초등학교가 펼치는 통일평화체험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원장 정의정)에서는 양도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서사체험학습장에서 '2018 통일평화체험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통일평화체험 상설 프로그램'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준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급 단위의 순환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육홍보팀 사진/이예슬



통일시대, 평화시민



강화평화전망대 _ 북녘 땅 바라보기



강화평화전망대 _ 북한의 생활 해설

‘통일과 놀다, 평화야 만나자!’ 테마로 진행된 양도초등학교의 체험활동은 강화평화전망대 견학을 통해 변화하는 북한 모습을 보고 느끼는 활동, 탈북 선생님과 함께 북한의 생활 모습 및 우리 문화와의 다른 점 살펴보기, 통일평화를 염원하는 미산가 팔찌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다.

현재 휴전선 전망대는 우리나라에 총 14곳이 있고 강원도 6곳, 경기도 7곳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화도에 1곳이 있다. 서사체험학습장에서는 인천 유일의 휴전선 전망대인 ‘강화평화전망대’를 견학하여 탈북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인접한 북한 땅을 직접 보고 느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학생교육원 통일평화교육 강사이신 권영숙 탈북선생님은 “멀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우리는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변창하는 미래가 올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북한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통일 이후, 혹은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교육활동 참여의 의미를 말해주었다.

- 1) 미산가 소원팔찌는 남미의 축구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착용한 알록달록한 실팔찌에서 기원했다. 소원을 담아 만들어 손목에 늘 차고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실이 끊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진다.



통일염원 담아 미산가 팔찌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도초등학교 6학년 이서현 학생은 “전 동월 타며 북한 지형을 알아봤고, 북한 체육대회 종목인 ‘병끼고, 공이고, 발끼고 달리기’를 해보았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평화 전망대에 가서 직접 북한땅을 보니 가까운 이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체험한 활동들이 북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더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정의정 원장은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통일평화 시대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통일을 위한 의지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진 상황 속에서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서사체험학습장에서는 통일평화 공감대 형성과 통일 준비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청소년이 통일과 평화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은 통일 이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미래 세대의 통일·평화를 위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시대, 평화시민으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체육대회 3종목



병끼고 달리기



공이고 달리기



발끼고 달리기

통일·평화 캠프 12가지 프로그램 인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

- ① **통일·평화를 춤추다** _ 통일·평화 감수성을 몸짓으로 표현하기, 바디스락 입고 몸짓 표현하기, 북한의 업간체조 따라 하기, 통일·평화를 테마로 몸짓 창작 및 발표하기
- ② **통일·평화를 달리다** _ 북한체육대회를 통해 북한 학생 생활 모습 이해하기, 공이고 달리기, 병끼고 달리기, 발목 묶고 달리기 등, ‘함께’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통·공감 체험하기
- ③ **통일·평화를 두드리다** _ 통일·평화를 향한 염원 난타로 표현하기, 두드리는 활동을 통해 박자와 소리 만들기, 통일·평화를 테마로 리듬 창작 및 발표하기
- ④ **통일·평화를 그리다** _ 꿈, 희망, 열정 등 불꽃이 가진 상징 의미 그리기, 학급 전시회 실시, 통일·평화 소망을 불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기
- ⑤ **통일·평화를 쓰다** _ 통일·평화를 테마로 4행시 혹은 2행시 쓰기, 캘리그라피로 종이컵 위에 나의 염원 표현하기, 통일·평화 꿈, 관계, 행복 종이탑 쌓기
- ⑥ **통일·평화를 연결하다** _ 통일·평화 기원 팔찌 만들고 나누기, 그라데이션 실을 이용한 미산가 팔찌 만들기, 통일·평화의 연결 디딤돌 형성하기
- ⑦ **통일·평화를 만나다** _ 통일·평화가 이루어지면 달라질 우리의 생활 이해하기, 나무 블록으로 한반도 지형을 만들고 통일·평화 마을 꾸미기, 통일·평화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 만들기
- ⑧ **통일·평화를 보다** _ 분쟁과 분단, 통일과 평화의 개념 이해하기, 강화평화전망대, 유튜브, 구글 스트리트뷰를 활용하여 북한 돌아보기, VR 탐색을 통해 통일·평화의 의미 다짐하기
- ⑨ **통일·평화를 나누다** _ 북한과 남한의 현실 및 생활에 대해 살펴보기, 새터민의 북한과 남한에서의 생활 이야기 듣고 질의응답하기, 통일·평화의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하기
- ⑩ **통일·평화를 맞히다** _ 전동월, Kahoot app을 이용하여 북한과 남한 관련 퀴즈 참여하기, 남북한의 문화를 비교해 보고 필요성 체험하기
- ⑪ **통일·평화를 노래하다** _ 통일·평화 콘서트, 참여 학교 담당자와 협의 후 출연진 선정, 통일·평화 공연을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과 신념 내면화하기
- ⑫ **통일·평화를 말하다** _ 통일·평화 월드카페, 대화를 통해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비교하기, 통일·평화 추진 방안 모색 및 실천 의지 다지기

평화교육의 방향

: 갈등해결 능력 함양과 비평화 교육 비판

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평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방식

“세계평화는 공동체의 평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호 관용의 정신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분쟁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소련과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를 극복한 뒤 1963년 ‘평화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현실적’ 평화를 내세웠고 평화를 분쟁 조정 ‘방식’으로 이해했다.

“평화는 일부 환상가나 광신자가 꿈꾸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와 선량한 의지라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꿈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표로 삼는다면 낙담과 불신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평화를 말합시다. 인간성의 갑작스러운 변



존 F. 케네디의 연설. 1963년 6월 10일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



화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 제도의 점진적 진화에 바탕을 둔 평화에 집중합시다.”

20세기 후반, 세계정세는 ‘냉전’과 ‘대결’에서 ‘평화’와 ‘화해’로 바뀌어 갔고, 케네디의 평화관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탈냉전시대와 평화정치의 실현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와 일상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갈등과 분쟁이 없는 이상 사회를 망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삶의 일부인 그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평화: 인간제도의 점진적 변화

다윈주의 인간 사회는 확일성과 통제를 반대하고 이질성과 자유를 용인하며 때로는 권장한다. 하지만 이질성이 상호 이익 충돌에 직면하거나 지배·권력 관계의 뒷에 걸리면 갈등과 적대감은 손쉽게 발현된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차이와 문화의 이질성이 적대적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곳곳에 고리를 걸고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갈등과 분쟁이 사라진 이상 상태에 대한 망상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 평화 규범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다. 평화교육은 적대적 갈등과 폭력 대결이 정치와 일상에서 발현되고 상승되는 구조적 장치를 고장 내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즉, 평화교육은 갈등과 대결을 이성을 발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며 예방하는 능력을 기르는 문명화 작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선포.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

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평화를 모든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고 그 구조적 원인이 말끔히 사라진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평화교육에서 오히려 뒤로 물러야 한다.

국제 평화학에서는 요한 갈통의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관점이 학문적 의미와 실천적 함의를 잃은 지 오래다. 불평등과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가 있다고 그것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또한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태라는 ‘적극적 평화’ 개념은 애매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하게 정의된 포괄적인 평화의 개념과 관점 때문에 구체적인 폭력을 실행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적대적인 행위자들의 죄가 가려지고 책임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 또 ‘소극적 평화’로의 실천이 ‘적극적 평화’라는 망상에 묻히기 일쑤다.

평화교육은 온갖 선한 말들이 다 펼쳐지는 향연이 아니다. 구체적인 폭력과 적대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작은 성공을 축적하는 전승 같은 것이다. 평화교육은 ‘인간성의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라 ‘인간제도의 점진적 변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고, 특히 거창한 말만 떠들썩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²⁾고 가르칠 줄 아는 것이다. 바로 그런 평화정치와 평화교육이 1990년 냉전해체와 독일통일을 이끌었다.

#평화: 비평화를 극복하는 과정

평화교육은 인권과 민주주의와 세계시민성 같은 선한 규범들에서 출발하거나 그것의 이상적 상태를 다 모아 축성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교육은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타자와의 공생(기회)을 파괴하고 평화적 갈등 조정(가능성)을 차단했던 비평화 교육에 대한 비판과 거부에서 시작한다. 지난 시기 학교와 사회 도처에 속주처럼 자라났던 이른바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의 비평화 교육을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 삶의 차이와 존재의 이질성을 적대적 타자 인식과 대결 의식으로 변질시킨 교육 내용과 사회제도들에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다. 통일은 경제적 대박도 아니며 갈등의 최종적 해결도 아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이 ‘장기간의 평화프로젝트’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평화는 사방팔방에서 올 수 있지만, 비평화교육과 단절하고 그것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통일·평화교육은 그저 알리바이나 정치 연극에 불과하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가르친 비평화 안보교육과 단절하지 않고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가르칠 수가 없다. 북한을 여전히 수동적 존재로 상정하는 온갖 통일 구상(교육)도 타자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삼는 평화교육에 조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환상가’나 ‘광신자’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앞선 비평화 교육과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 평화(교육)는 비평화(교육)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초등학생에게 전쟁훈련? 안보교육은 비평화교육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 1)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내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억압이나 착취를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적극성을 지닌 개념이다.
- 2)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독일 총일 빌리 브란트의 평화정치를 요약한 문구

통일과 평화 세대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교육홍보팀 사진/서주희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2018.4.27. 판문점 선언)

지난 4월 27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두 정상인 만나는 악수하는 장면, 파란색 도보다리에서 마주앉아 대화하는 모습은 흐뭇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었다. 인천은 북한 인접지역으로서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며 통일과 평화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도 새삼 강조하고 있다. 남북 간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평화통일로 이어가고 통일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확고한 관점과 자세를 갖기 위해 실시된 워크숍과 공개수업 현장을 찾아가보았다. 북한의 사회·문화 및 예술에 관한 맞춤형 연수로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열린 워크숍이다. 인천 통일교육수업연구회는 미래의 '통일 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집단 토론을 하고 통일교육 핵심전달자 중심의 워크숍을 하여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발맞춰 학교교육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통일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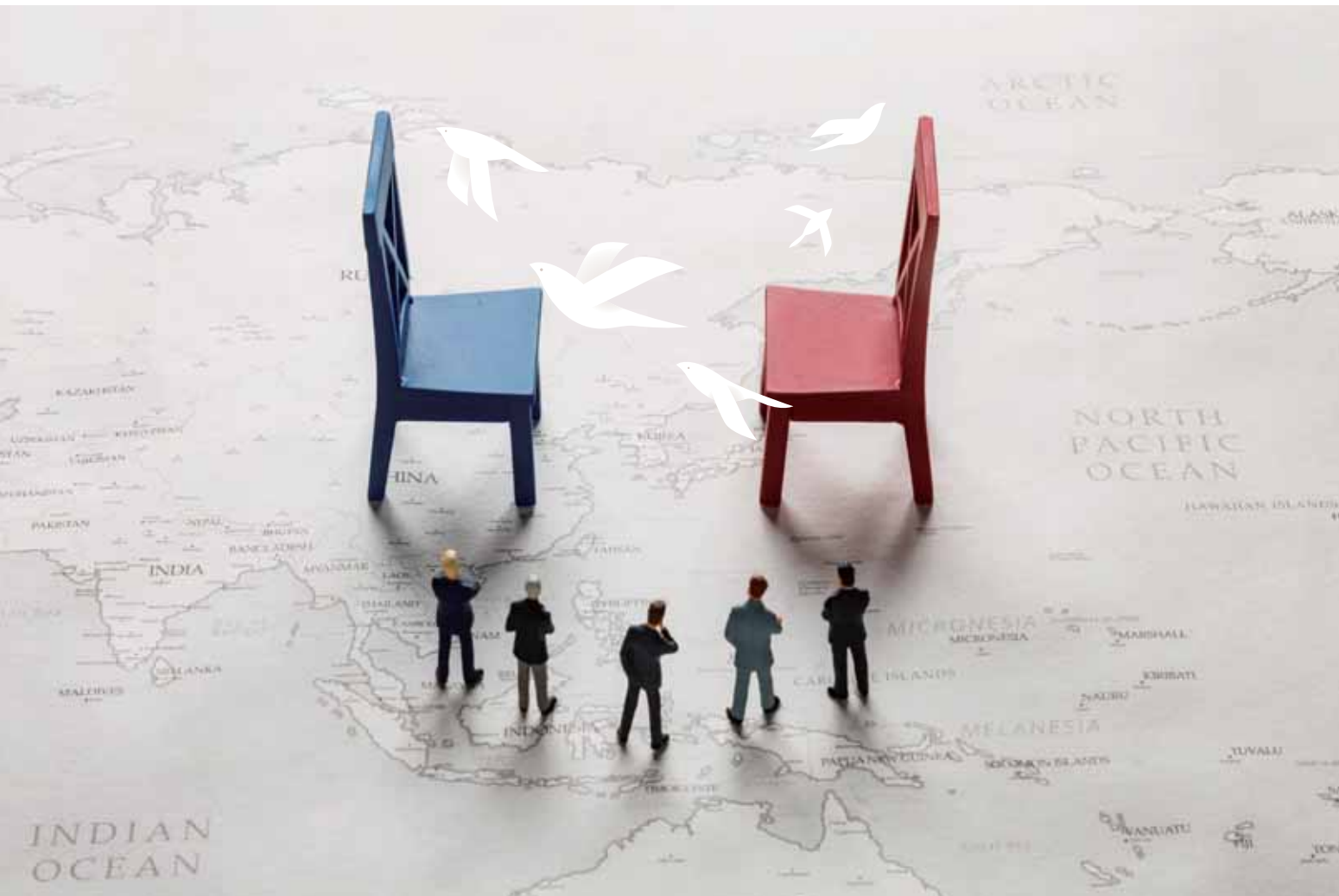
인천시교육청과 통일부는 6월 25일 공동으로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통일교육수업연구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제에 맞게 강의 및 토론 중심으로 하였고,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일반화하는 자리였다.

'항일 독립운동과 고려인 강제이주 탐구를 통한 남북한의 역사적 관점 고찰'이라는 주제로 수원대학교 박환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구한말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항일투쟁의 열기와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며 1910년대 국내외를 걸쳐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연해주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18만 동포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한 고려인 강제이주는 민족적 차원의 비극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는 점을 특강을 통해 밝혀주었다. 통일

교육원의 김진환 교수는 2018 남북정상회담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탈냉전 시대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국민의 높은 통일의지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하였다. 세대별 통일의식의 변화와 주요 이유를 알아봄으로써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었다.

선생님들은 학교통일교육 방향을 잡기 위해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 '역사를 위한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통일담론의 변화와 그 과정에 대해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강조하였고 통일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므로 역사를 통해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내고 통일개념의 분열을 해소하며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통일! 전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요

교육홍보팀

수업/최윤아 인천동양중 교사

사진/장양기 가좌고 수석교사

‘공산당이 싫어요’, ‘북한 빨갱이’와 같은 내용으로 40대 이상 어른들은 국민학교에서 반공 웅변대회, 글짓기, 표어와 포스터 그리기 활동을 했다. 그 위험함과 경계심을 잘 표현하면 상을 받았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교류, 평화, 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의 학생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통일과 평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인천동양중학교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축제, 기념일, 상징성을 가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통일을 잊지 말고 우리의 자랑거리와 추억으로 만들고 싶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닫힌 생각에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

통일교육의 수업은 어떻게 할까?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갈등과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거쳐야 할 일이고 그 과정이 평화와 공존을 밝히며 진행되어야 우리가 진정 원하는 미래도 다가올 것이다. 인천동양중 최윤아 선생님은 “통일교육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에서 단편적이고 일회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약하다. 통일은 익히고 배워야 할 인지적인 내용이 아닌 삶의 자세, 문화적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과융합수업으로 기획했습니다.”라고 통일교육의 방향을 말한다.

통일은 하나의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은 통일 후의 사회를 상상하며 통일 한국에서의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이다. 완성된 통일을 상상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필요로 할지 ‘창업’이라는 생각의 도구를 사용한 수업이었다.

2025년, 내가 북한에서 창업한다면?

(상황) 2025년 통일이 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우리들의 나이는 22세이며 5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다.

통일교육원의 자료에 기반한 통일 한국의 유망 직업군으로 ‘관광사업가’, ‘남북 문화통합 전문가’, ‘광물자원 전문가’, ‘환경 컨설턴트’, ‘물류 사업가’ 등을 살펴보고 모둠별로 창업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발표했다. 다음은 인천동양중 학생들이 발표한 창업 아이디어이다.



IDEA

1모둠

남북교통카드

남한용, 북한용 2종 코스

교류를 활발히 하는 교통카드로 서로 왕래를 자주하여 이해하고 갈등을 줄임. 파랑과 빨강의 혼합색인 보라색으로 제작

신연수, 왕빈, 서보성, 김은성

2모둠

호랑이 모양 장난감 세트

한반도 지도 퍼즐식 유아용 장난감
우리나라 마스코트인 호랑이를 지형모형으로 만들어 통일한국의 가치와 의미를 높임

노윤아, 장선재, 손지원, 윤준호

3모둠

배지

통일을 기념하고 소속감과 상징성을 높여 남북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 민족성을 높임

김민정, 김민균, 오하연, 이가영

4모둠

결혼상담회사 ‘맺음이’

남북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찾아가는 상담을 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줄임. 남북 곳곳에 상담소를 설치함.

윤성민, 홍정욱, 송유림, 장혜빈

5모둠

우리말 사전 ‘함나통사’

‘함께 나누며 통하는 사이’를 의미함
서로 언어 장벽을 낮추고 통하게 도움을 줌
외국어 번역 기능 추가로 외국인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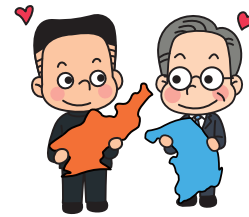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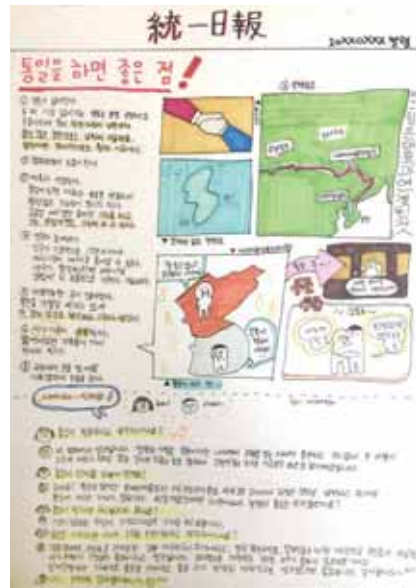
유영은, 이지우, 유다은, 남혜진

6모둠

오케이 시계

‘오리지널 코리아 이미지케이션’의 줄임말로 ‘진정한 한국’이라는 뜻의 한정판 시계. 우리나라 지형으로 만들어 통일을 홍보하고 기념함

한은혜, 김민서, 임병현, 이나현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의
문화 조성

평화의 바람이 통일로 흐르게 하자

통일교육이 몇 단계의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또한 ‘통일’이라는 명제를 강압하거나 민족적 과제이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로 몰아가지 말아야한다. 통일을 목표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평화교육이 중요하다. 통일을 위한 통일은 과정의 공정함이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며 사회적 성숙을 이끌어내는 것은 통일한국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랫말에 과연 소원이 통일인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불손한 것이 아닌 비판적 사고의 결과로 보여야 한다. 현시대는 당위적 접근이 아닌 우리의 역사적 흐름과 상황,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며 개인과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문화가 삶에 녹아들기를 원한다.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국가제일주의의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평화의 바람이 통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모둠별 발표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냐?”는 질문으로 관점의 차원을 달리해 보는 성숙된 자세도 볼 수 있었다. 학생 창업 아이디어들의 특징은 통일을 기념하고 자랑거리로 의미한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이해를 위한 노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막연하고 잘 몰랐던 통일, 관심을 갖고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저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수업은 5차시로 준비된 프로젝트 중 3번째 시간을 공개한 것이었다. 교과융합수업을 함께 준비하고 1차시 수업을 진행한 도덕과 송지원 선생님은 ‘북한을 나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말한다. 정치·사회적 접근은 자칫 학생들이 어려워 할 수 있고, 아직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와 반공선입견을 가진 성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통일’, ‘북한’, ‘평화’에 대해 말할 기회가 적은 영향도 있다. 이번 수업처럼 통일교육을 위한 여러 형태의 수업들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에게 통일과 평화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과 사고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

‘두빛나래’

양영환 용현여자중학교 교사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서로 등을 돌린 지 68년째인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통일의 희망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다. 한민족이면서 남과 북으로 서로 등을 돌리고 외면했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서로 포용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민족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인 것이다.

용현여자중학교 1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통일동아리 ‘두빛나래’는 ‘두 개의 빛나는 날개. 즉 한반도의 남과 북이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하나가 되어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으로 날아오르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통일동아리 「두빛나래」는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 분야를 결정하고 실천·탐구해 나간다. 특히 같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통일 인식 설문조사를 하여 통일동아리 활동 방향을 정했다. 학기 초 통일 인식 설문조사 결과 ‘통일을 꼭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 혹은 ‘매우 아니다’를 선택한 학생이 40.5%였다. ‘통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추가 질문한 결과 41%는 경제적 이유를 들었고, 그 외 이념적 문제, 문화적 차이, 정치적 문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동 분야 및 실천·탐구 과제 등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통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 하나, 동아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아침 등교시간 학교정문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통일 퀴즈 행사를 진행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통일 2행시 짓기를 하여 일상에서 가볍게 접하며 의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민족 분단의 현장인 임진각 및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을 견학하여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고, 평화 통일의 필요성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활동 둘,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운영한 통일 교육주간(2018.5.21.~5.27.)을 맞이하여 통일 애니메이션 감상 후 소감문 공모 및 통일 인증 샷 이벤트 등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통일을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 등을 경험하고 동아리 구성원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점 등을 폭넓게 하는 계기로 삼았다.

활동 셋,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통일 연계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봉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인천통일관이 주관하고 진행되는 통일 릴레이 체험프로그램(2018.5.21.~6.20.)에 동아리 학생들이 방과후에 참여하여 남한 말 북한말 게임, 보물찾기, 풍선 날리기, 북한 화폐놀이, 북한 지명 맞추기, 통일 염원 엽서쓰기 등 통일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가져왔다. 인천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을 참가하여 판문점 견학, 전쟁기념관 견학, 현충원 참배 등 활동을 통해 남북 분단의 아픔과 분단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다시 한번 배우는 계기도 가졌다. 아울러 나라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역할 및 방법 등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기반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사)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의 강사를 학교로 초빙하여 통일에 대한 열띤 토론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로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활동 넷, 매년 교육청이 주관하는 통일이야기 한마당 행사에 참가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올바른 통일에 대한 접근 및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용현여중 자율동아리 「두빛나래」를 이끌고 있는 3학년 학생은 “다가오는 2학기에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사회적 측면 등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보다 더 희망적인 사항 등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활기찬 두빛나래의 펼침을 기대해 본다.

고등학교 이 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갑희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교사

우리 인식의 실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이다. 학교 교육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교육해왔지만 우리 학생들의 통일 의식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통일부에서 2017년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협조 하에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전년도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중·고 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초등학생(74.4%), 중학생(59.3%), 고등학생(50.2%), 대학생(47.9%) 순으로 통일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생들 다수가 북한을 ‘협력’보다는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통일 필요성 인식이 약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갖게 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북한에 대한 이해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해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협력’이 아니라 ‘적대’ 세력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시대 상황의 변화와 현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에 환한 미소로 서로를 반겨주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만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해 남북,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에 만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의 통일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평화와 통일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부나 통일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연간 10시간(교과 4시간, 창체 6시간) 정도이며, 주로 윤리, 사회 교과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마저도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와 진학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한 소극적인 태도나 무관심으로 잘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의 통일교육 내용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학생들의 평화와 통일 감성을 키워주는데 어려움이 많다.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앞에서 살펴 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도덕, 사회교과 위주의 평화·통일교육에서 벗어나 여러 교과에서 통일 관련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평화·통일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공감하기 위해 음악 교과에서는 ‘통일을 노래하다’

라는 주제로 북한의 노래나 춤을 배워볼 수도 있고, 체육 교과에서는 ‘통일을 달린다’를 주제로 북한의 사람들이 즐겨하는 체육 경기를 체험해 보는 것도 그들의 정서를 몸으로 공감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또한 국어나 미술 교과에서도 ‘통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통일 후의 미래상이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거나 평화·통일 상징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몇몇 교과 위주의 평화·통일교육에서 벗어나 여러 교과에서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진정으로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의 청소년들을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는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상호 이해를 토대로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기존의 이념과 체제대결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미있고 살아있는 체험이나 놀이 중심 통일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보 전달 위주의 일방적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심이 높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통일 감성을 길러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통일교육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겪는 아픔이나 현실을 직접 체험해 볼 때 평화나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자라날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놀이 중심의 통일교육이 확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VR을 이용한 북한지역 가상 체험여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과 미래상에 대해 기성세대들이 주장하는 대안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보다 학생들 스스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통일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나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남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생필품에서부터 가전제품 등을 접하면서 오감을 통해 남한의 경제나 문화를 느끼고 있다. 이제 우리도 청소년들이 북한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북한 사람들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하루 빨리 평화가 정착되어 현장체험학습을 평양이나 백두산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작가소개>

인천시 강화에 살고 있는 이시우(1967년생). 그는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이다. 저서인 <유엔군사령부>(들녘)는 방대한 학술서로 주목을 받았고, <민통선 평화기행>(창비)은 한국을 대표하는 100권의 책에 뽑혀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2004)에 출품될 정도로 수준을 인정받았다.

이시우
사진작가, 평화운동가

철망 앞에서의 사색

폭염으로 뜨거운 한반도의 여름. 하지만 73년째 여전한 분단의 냉기
분단의 슬픔을 깊이 표현한 사진을 보며
지금, 우리를 되돌아보자.



강화 더리미



마디마다 가시인 철조망을, 마디마다 이슬인 거미줄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가르는 철가시마저 제 몸에 끌어안아 비추는 이슬의 작은 승리를 봅니다.
- 강화 월곶리 -



밤 새 별이 꾸던 꿈은 눈꽃이 되어 철망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 강화 연리 -



학생기자 교육감 인터뷰

민지현(삼산고), 손준형(인천고), 최유진(인천외고),
하재우(송도고), 한효성(인천해원고)

교복 입은 시민, 인천교육의 현재와 만나다

사진/손준형(인천고), 서주희(공보담당관)



최유진(인천외고) 교육감님께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소통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앞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성훈 교육감 학생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정책참여를 보장할 것입니다. 제안된 내

용이나 회의 결과는 교육청의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개선 자료로도 사용할 예정이에요. 매년 1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인천시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광장토론회’도 운영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소통도시락’을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도성훈과 시민들이 즐겁게 소통하는 통로’로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시민정책 제안 창고이므로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도 참여할 수 있어요. 1000명 이상 공감에 달 때,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학

생과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보고 정책도 알아가는 토크쇼 형식인데요. 상호 교류를 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버스킹’도 할 예정입니다. 소통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시작입니다. 소통한 이후에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민지현(삼산고) 교육감님께서 <학생, 교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관’ 신설>이라는 정책에서 학교 구성원 인권 침해 구제를 하나의 목표로 세우셨는데요. 그 중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우리 교육청의 ‘학교인권조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도성훈 교육감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폭넓게 학교구성원들을 포함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인권’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존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학교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인권조례인 것이죠. 또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구성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인권침해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신설할 예정이에요. 인권이 침해된 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인권 침해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재우(송도고)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은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는데요.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서는 학생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에는 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학생 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성훈 교육감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는 현재 우리 학교들의 인권 존중 실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도 있었지요. 하지만 학생들이 만족할 만큼은 못했습니다. 선도부 문화의 잔재나, 휴대폰 사용의 규제,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 등이 아직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볼 생각이예요.

우리(교육감님 세대)가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과 학생들만이 학교 구성원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학생과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 행정실 직원, 공익근무 요원 등 정말 다양하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도 교육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은 똑같이 소중해요. 인권 자체가 태어나면서 모두가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다른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조례 말입니다.

한효성(인천해원고) 지난 촛불집회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보여준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에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투표권을 만 18세까지 줄이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청소년들도 자신이 뽑지 않은 후보보다는, 자신이 뽑은 후보와 더 소통하고 싶을 것입니다. 만 18세 투표권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성훈 교육감 지난 경험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지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



습니다. 예비후보자 일 때 청소년에게 뽑히는 교육감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약 3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선에 참여함으로써, 일부는 이루었지만 아직 학생들은 6월 13일에 투표를 하지 못했지요.

만 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투표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만 16세까지도 내리고 싶지만, 일단은 만 18세까지라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성(인천해원고) 인천 고등학생들의 독서 교육 실태는 심각합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야자 시간에 책을 읽다가 걸리면 혼이 나기도 하고, 책을 뺏기도 합니다. 숙제로 내준 독후감을 인터넷에서 베껴 쓰는 현실 또한 만연해 있습니다. 독서는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은 때에, 읽고 싶은 장소에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도성훈 교육감 질문한 학생과 같은 생각이예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베개 삼아서 자기도 하고 편안하게 독서해

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원인은 '입시' 때문이겠지요. 책을 읽어야만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 진학하기 위해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학생들이 알게 하고 싶어요. 본래 독서라는 것은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며 재미있게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진학을 위한 수단인 독서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독서를 해야 '삶의 힘'을 기를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하여 진짜 삶이 전해지는 생생한 독서를 경험해보기도 할 겁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가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진정한 독서의 가치를 아는 도시, 인천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손준형(인천고) 제게는 6살 차이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평소에 학업을 도와주거나 부모님 외출 시 보살피곤 하는데요. 동생을 돌보는 일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빠른 교육변화 속에서 부모님들도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학생이지만 미래에는 부모가 될 텐데요. 좋은 학부모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성훈 교육감 부모도 초보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거나 자격증을 받아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는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부모의 역할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중 한 가지가 학부모의 인식 변화입니다.

‘모든 아이의 부모인 학부모’로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해요. “모든 아이는 나의 아이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밖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들은 제가 동암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 지킨 내용이에요. 학교에서는 누구의 엄마로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런 면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학부모 역할의 원칙을 지키며 과거의 부정적인 면은 줄이고 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보조적 위치가 아니라 교육주체로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며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는 학교교육이 성장하며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면이 좋은 학부모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부모님들께는 “미래를 열어두는 학부모가 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성장과정 속에 자녀를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세상에 자녀가 살아갈 수 없어요. 자녀는 부모와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삶의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경쟁사회를 살아왔던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요.



학생기자 인터뷰 후기



우리 학생기자 5명은 교육감님이 어렵고 엄숙할 것 같아서 많이 긴장했었다. 하지만 웃으며 대화를 나눠주시고 농담도 해주셔서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다. 교육감님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나눌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다. 삶은 관계를 바탕으로 공감과 연대하며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정리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SNS의 가벼운 관계가 아닌 어렵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질 높은 관계를 가져야해요.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공감과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남들이 아파하면 슬퍼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 이해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공감과 연대이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복합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공감의 다른 이름은 관심과 소통이며, 연대는 변화의 시작이자 확장과 발전을 이루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힘이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보다 가까운 현실에서 이룰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제3대 주민직선 인천광역시교육감 취임

지난 7월 1일 태풍과 함께 온 도깨비 선생님,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취임했다. 학생과 교육현장, 준비와 열정, 소통과 협치로 씬 없이 달려온 60일의 스케치로 교육감을 만나보자.

교육홍보팀 사진/서주희



현충탑 참배



취임 선서

1 학생이 중심이다.



청선학교 학생과 함께하는 등굣길



덕적도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



덕적도 고등학생과의 대화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행복나눔터' 에서 만난 학생!



인천SW교육지원센터에서 파이팅!



시교육청 구내 식당



재해취약시설 점검

2

현장에
답이 있다.



제8대 교육위원과의 만남



전국시도교육감 협의



인천시와 협약

4 함께 만든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학교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수도권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특강



도성훈 인천교육감 각 실과 인사



2018 초중등 교감 자격 직무연수 특강

3 준비를 성공하면 성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시 고민하고 경청하며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오늘을 살며 미래를 만드는 정책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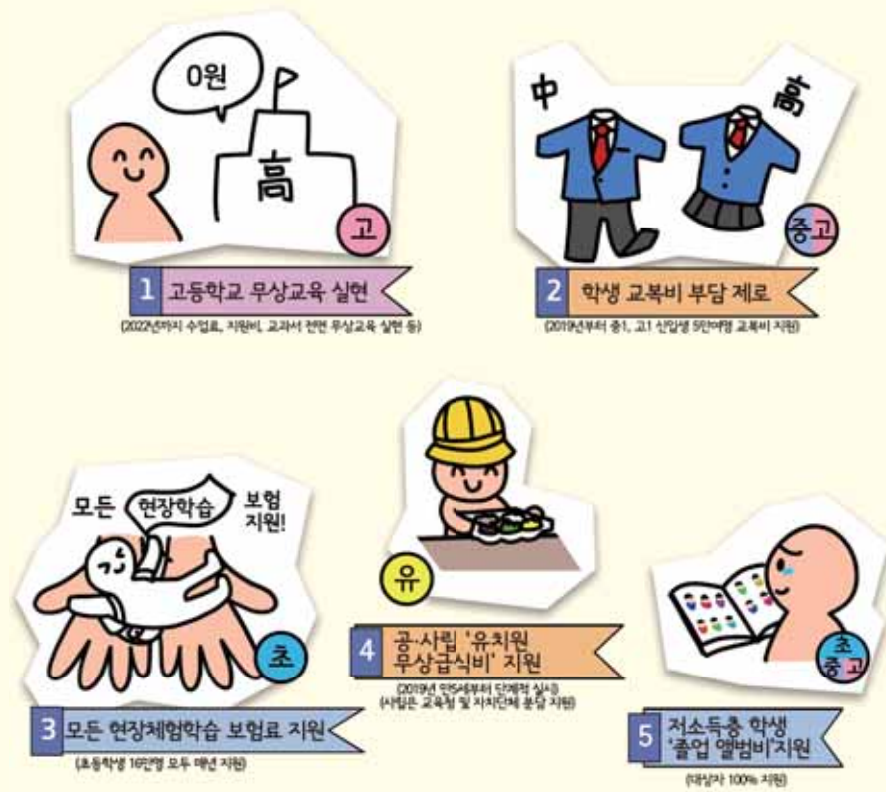
인천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자랄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이 항해를 시작했다.
 꿈, 소통, 공정의 노를 잡은 도성훈 교육감!!
 무상·미래·안심·평등·소통·혁신·청정의 7가지 약속부터
 55개 과제까지 인천교육의 미래를 만나보자.

그림/정다운 인천석천초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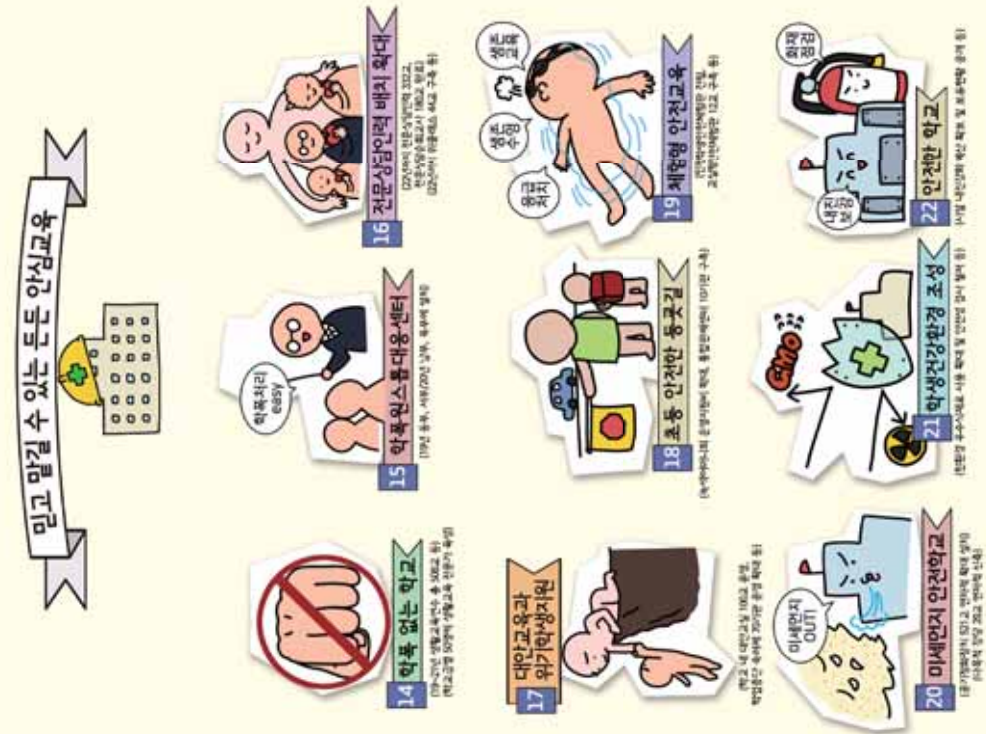


교육약속 **하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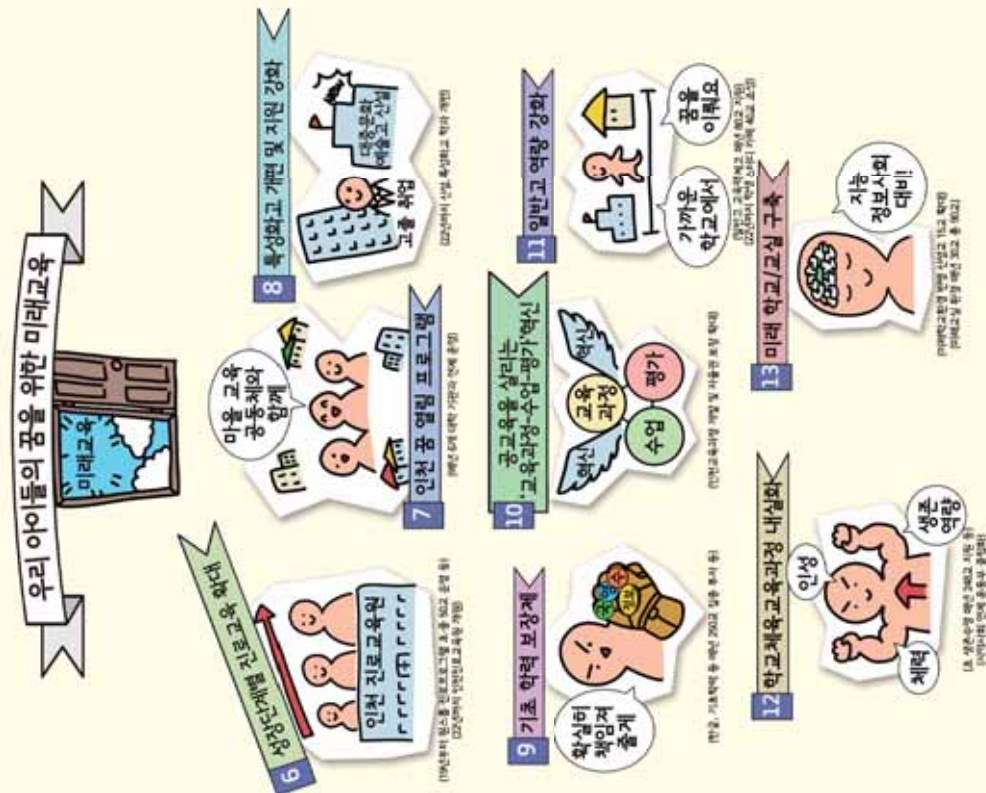
전국최초!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3
세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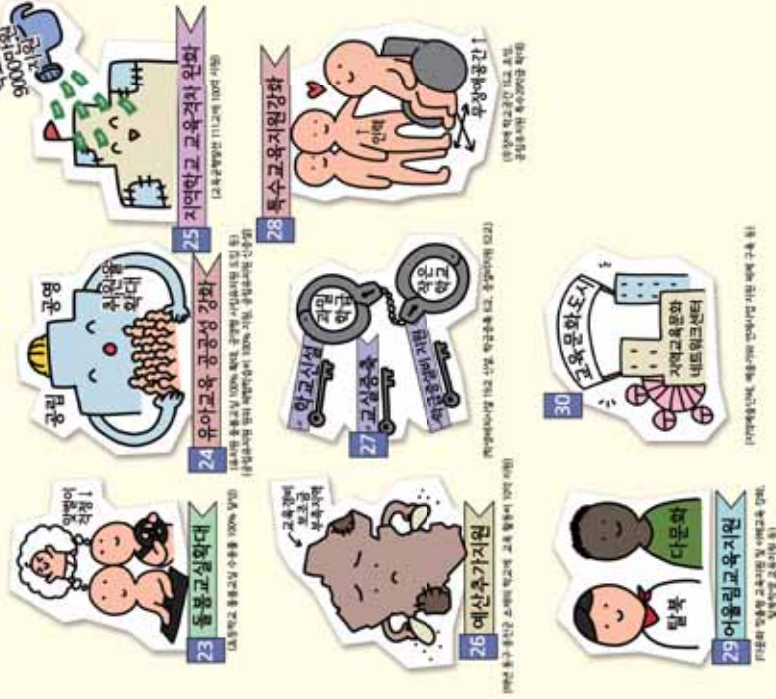
2
선
안
관
부



교육의속
넷 4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균등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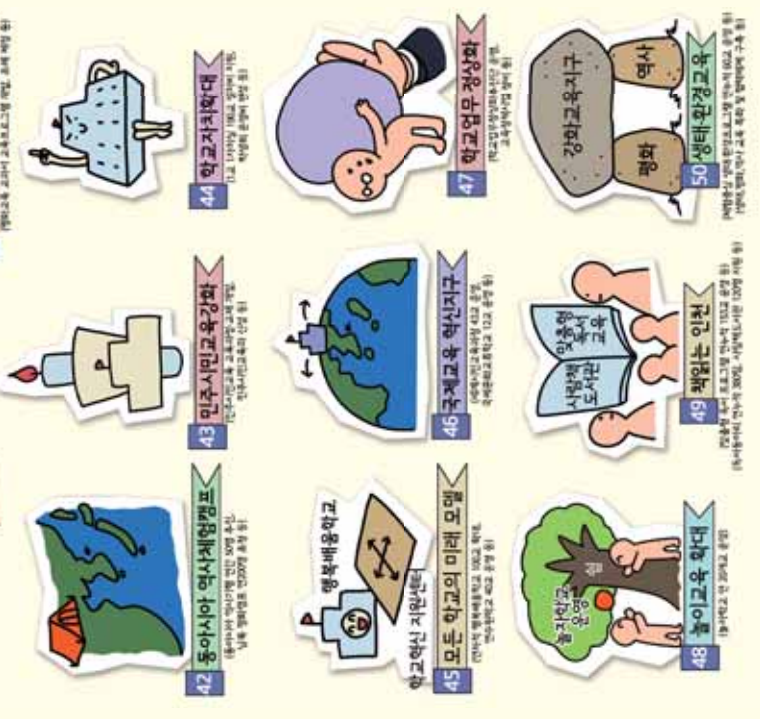
교육의속
다섯 5

학교 미술과 협력하는 소통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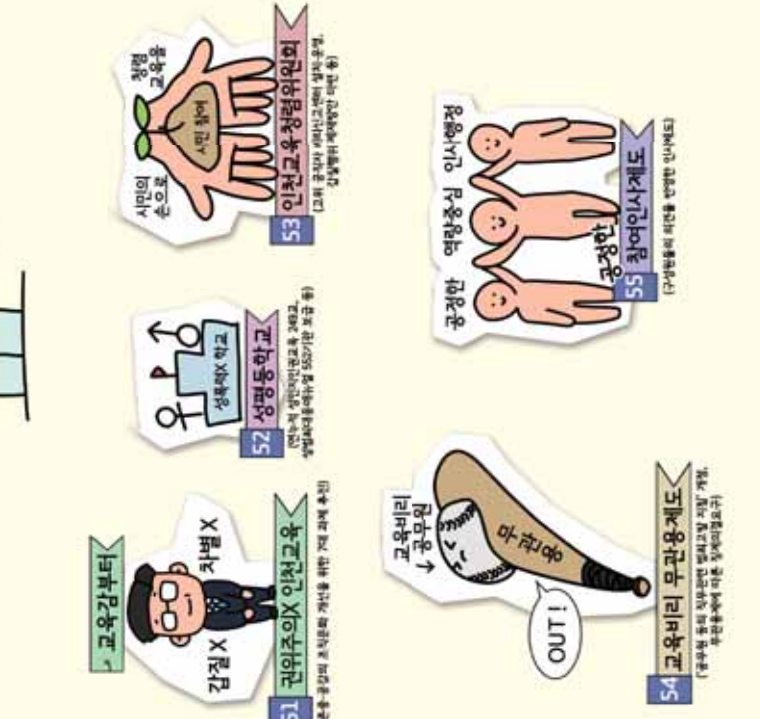
교육의속
여섯 6

세계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혁신교육



교육의속
일곱 7

부정부패, 성폭력 없는 청정교육





‘공감 1,000명! 소통도시락(樂)’, 정책버스킹 운영

누구나 제안하는 교육정책 창구 “정책 제안해 주세요”

소통도시락 게시판은 시민 참여 ‘정책 제안’ 공간입니다. 소통도시락에 주신 정책 제안 글에 1,000건 이상 공감하시는 의견(동의 댓글)이 달리면, 인천교육의 주요한 주제로 판단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해 드립니다.

소통도시락은 무엇인가요?

‘소통도시락(樂)’은 [도]성훈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락, 樂] 행복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뜻으로 시민들에게 행복교육을 배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선정과정 및 시민들의 정책 지지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시민이 오프라인에서 교육감과 직접 마주하여 교육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의 직접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추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통도시락은 어떻게 운영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도시락’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정책버스킹’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1 온라인 정책 제안 과정

- 시민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
- 인천시민이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관련 사항 검토
- [제안신청 → 공감댓글 1,000개 이상인 제안 → 해당부서 제안답변]
 - ① 시민이 도시락 주문(제안신청)
 - ② 시민 공감 댓글 달기 → 공감댓글 1,000개 이상인 제안 현재 1,000명이 해당 제안(도시락)을 좋아합니다.
 - ③ 관련 부서 배정(도시락 제작 중)
 - ④ 관련 부서 의견 답함(도시락 배달 완료)

2 오프라인 정책 제안 과정(정책 버스킹)

- 소통도시락 오프라인 정책 제안 행사로 연 8회 진행
-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시민들이 교육감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버스킹 공연, 교육청 주요 정책 소개, 토크쇼, 시민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을 실시
- 오프라인으로 제안된 내용을 분류·검토 후 도시락 홈페이지에 정책 반영 여부 공개

3 소통도시락(홈페이지) 제안 방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소통도시락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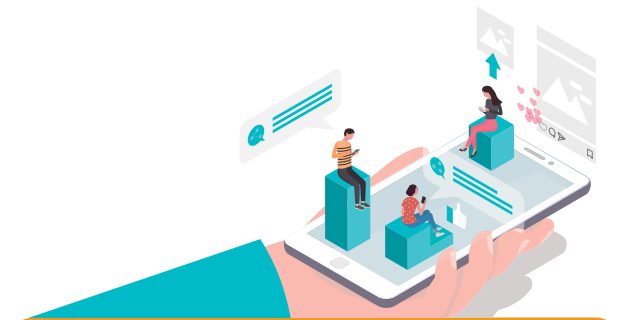
② 소통도시락 아이콘을 클릭



③ 글쓰기 버튼을 클릭



④ 동의하는 정책에는 '동의합니다' 공감댓글 달기



4 소통도시락 정책 구현 담당자 인터뷰

‘소통도시락’은 시민들은 쉽게, 언제, 어디서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과정을 제안자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안 창구와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은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올린 글 중에서 중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공감 댓글로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7건(2018.8.1.기준)의 의견을 도시락 게시판을 통해 올려주셨으며, 가장 높은 조회 수의 의견은 17,000회가 넘으며, 현재 사회적 배려 학생 미급식일 및 무상우유 지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방안의 공감 댓글이 103건으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소통도시락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존의 교육 정책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공감 의견을 눌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문화가 좀 더 갖추어지면 시민들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와 제안을 개발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성원 글짓는 스웨덴 교사

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할 때, 사회 시간에 ‘너희들이 바라는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은 무엇이니?’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어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내심 궁금했다. 아이들은 ‘학원 없는 세상이요’,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요’를 외치며 자기가 바라는 미래 사회를 말했다. 그 중 유독 한 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는데 다 시금 생각에 빠지게 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에게 평화란 무엇일까? 내 생각엔 자기 옆의 짝궁과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교실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 등이 먼저 생각나야 할 것 같은데 초등학생의 머릿속에서 분단, 핵실험, 전쟁과 같은 거대하고 무거운 문제를 먼저 떠올리는 모습을 보며 슬픔과 미안함이 느껴졌다.

평화란 전쟁 없는 세상일까?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던 스웨덴에서는 그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스웨덴 주요 신문들은 웹사이트 메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사진으로 실으며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의 갈등 완화, 핵무기 위협으로부터의 해방된 세계를 희망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의 문제지만 지구촌의 평화를 바라는 스웨덴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스웨덴 신문이나 뉴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미국과 북한의 설전 같은 무거운 소식들만 보도했는데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들으니 평화가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가 자리 잡은 미래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졌다.

누군가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반 아이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아직까지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전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내면의 평화나 안정된 주변 환경, 고요한 자연 등을 평화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스웨덴과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발발한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지킴으로써 전쟁을 피했다. 직접적인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전쟁의 비극 또한 겪지 않았다. 6.25와 분단, 현재까지 이어지는 긴장을 안고 있는 우리와는 역사적 과정이 다르기에 평화에 대한 생각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평화를 직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나 집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뜻하겠지만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인지하고 그것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과 사회적 분위기이다. 이런 넓은 의미의 평화를 위해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폭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평화는 시작된다.

스웨덴에서 평화 교육은 폭력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내가 사는 마을과 학교가 폭력에서 완전 무결하고 비폭력적인 공간이라고 설정하지 않는다. 대신 마을과 학교는 언제든지 따돌림이나 다른 종류의 차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학생 개개인의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으로 예방될 수 있는 것임을 교육한다. 학교에서 이와 같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학생 스스로 고민하도록 물음을 던져주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의 교육은 학교에서의 폭력을 넘어서 지역사회,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분쟁이나 전쟁을 구조적 문제로 보거나 국제 관계에 의한 것이라 가르치기보다는 대화, 협업, 분쟁 조정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가르친다. 주변 환경과 국가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이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교육이 이뤄진다. 갈등이나 문제는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하고 대화와 관용, 참여와 타협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교육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 시민성, 사회 참여 인식, 다양성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비폭력 대화법, 갈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갈등 조정 방법, 평화 역량 증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갈등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의 교육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에게 평화 감수성이 싹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쌓이면 사회 전체의 폭력을 줄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아이들이 작은 사회 안에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비폭력적인 사회 환경이 마련되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평화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이뤄진다면 평화가 자리잡은 사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비경쟁 토론의 중요성과 사고의 힘

강유하 구월여자중학교 3학년



누군가 나에게 토론은 승패가 있는 게임이라고 했다. 그래서 난 늘 토론을 이기기 위해 준비했다. 그리고 질 때는 늘 속상해했다. 그랬던 내가 토론에 대한 생각이 요즘 들어 바뀌기 시작했다. 토론은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다. 설령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설득을 당하더라도 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토론의 목적은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고 융합하며 창의적인 관점이나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런 내 변화된 생각에 이번 토론 수업은 확신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토론은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세 번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지 않으시는 부모님 이야기를 하며 울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로맨스 소설에 빠져 고민이라고 이야기 하며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놀라웠던 것은 이 토론을 하는 내내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 주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은 있었지만 그 근거는 모두 달랐다. 나는 이것을 보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 다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은 없다. 쌍둥이도 취향, 성격, 꿈이 모두 다를 수 있다.

모두가 다른 이 사회에서 서로의 다른 모습뿐 아니라 다른 의견, 가치관을 존중하며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토론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진정한 토론의 목적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토론 활동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책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깨달음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토론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생각한다는 것』을 읽고
함께 공부하고,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삶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인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그 어떤 기계도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생각하는 힘이다.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즉 철학하는 힘은 인간이 가진 능력들 중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마저 그저 남이 시키는 일에 따른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 내용의 깊이보다는 처리 속도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삭막한 사회에서 무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보긴 좀처럼 쉽지 않다.

『생각한다는 것』(고병권, 너머학교)은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문제를 근거로 들어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철학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각하는 행위에 대한 작가 본인만의 철학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잘 산다'의 기준이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우리는 보통 '잘 산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과연 경제적 부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가? 작가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고 말하지만 돈 버느라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으며 물질적 풍요만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점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잘 산다'의 새로운 기준점이자 잘 살기 위한 기술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단지 그 생각이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습관, 관습, 통념, 편견 등에서 벗어나 다르게 생각하여 새로운 생각을 낼 때 비로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작가가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다른 생각', '다른 삶'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창조적인 생각과 삶을 통해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에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세요. 서로를 생각해
하게 해 주는 사람, 서로를 공부하게 만드는 사람,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 본문 중에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을까? 바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각하며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또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나 자세가 필요한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은 아닐까.

인천교육
2학기 주요행사

순	행사명	슬로건	내용요약	일시	장소	대상	문의
1	인천직업 교육박람회	꿈을 위한 도전! Dream in Job!	직업교육박람회는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특성학교·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안내 및 상담을 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선취업 후진학 등 직업교육정책을 안내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며 특성학교·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작품 전시회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9.12.(수)~ 9.14.(금) (3일간)	송도 컨벤시아	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420- 8320
2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모두가 행복한 문화로의 초대 통합으로 함께가는 어울림 축전	장애, 비장애학생, 학부모 등의 어울림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소통·공감의 장이 2018년에는 인천에서 펼쳐진다. 공연, 체험, 전시와 인문학 콘서트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면서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9.18.(화)~ 9.20.(목) (3일간)	송도 컨벤시아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420- 8282
3	제9회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한국어와 부모님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올해 9번째를 맞이한다. 초등부, 중등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다양한 나라의 부모님을 가진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치게 된다. 부모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게 될 것이다.	10.2.(화) 13:00~ 18:00	한중 문화관	초중고 다문화 학생	420- 7697

순	행사명	슬로건	내용요약	일시	장소	대상	문의
4	제99회 전국체육 대회 제38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비상하라 천년전복, 하나 되라 대한민국	1920년 경성부에서 첫 개최를 하였고 올해 99회를 맞이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에서 47종목(정식 46, 시범-택견 1), 2만 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종합 경기대회가 열린다. 삼국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서동, 백제)과 처녀(선화, 신라)의 결혼을 모티브 화합과 비상의 의미를 담아 ‘서동과 선화’ 마스코트를 정했다. 이어지는 전국장애인체전도 ‘한마음 된 전북에서 한계 없는 감동체전’이라는 표어로 10.25.~29까지 열린다. 인천의 모든 학생 선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보자!	10.12.~ 10.18. (7일간) 10.25.~ 10.29. (5일간)	전라북도 익산시 일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420- 8297
5	제3회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전시, 체험, 공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학부모동아리 등에서 학교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에서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활성화되는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10.20.(토) 10:00~ 16:00	인천 광역시 평생 학습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420- 8285
6	2018 인천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	‘학교’ 예술로 물들다	학생들의 예술체험과 협력적 창조활동을 통해 안정감과 자존감, 소통능력을 키우는 인성 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축제이다. 밴드·댄스·뮤지컬·연극·풍물 등의 학생예술동아리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모두가 예술가가 되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에 가보자	10.23.(화)~ 10.24.(수) 09:00~ 18:00 (2일간)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420- 8258
7	청소년 학술제 포스터 발표대회	교과서 세상 밖으로 나오다	학생 중심의 학술 동아리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 및 문제 해결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제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인문탐구분야 소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삶의 현장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발표한다고 하니 그 연구력을 확인해보자.	10.27.(토)	인화여자 고등학교	고등학생	420- 8246
8	학생 외국어 동아리 페스타	나를 표현하고, 우리를 즐기다 (나·우리·축제)	세계화·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양성과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스피치, 팝송, 연극, 뮤지컬, 모의유엔, UCC, TED, Writing, Debate 등 다양한 유형의 동아리를 만날 수 있다.	11.3.(토)		고등학생 교사	420- 8259



순	행사명	슬로건	내용요약	일시	장소	대상	문의
9	제4회 혁신교육 한마당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인천의 혁신교육이 더 성장하기 위한 사례 나눔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강연, 발제, 토크 콘서트, 워크숍 등으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로 학생 배움의 열정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11.3.(토) 10:00~16:00	인천대학교 대강당, 컨벤션센터	교사 시민	420-8228
10	제20회 인천과학 대제전	.	과학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 STEAM 교육, 이공계진로 체험전 등이 열린다. 학생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학 축제를 위해 학생들은 7월부터 참여하였으며 관람자 중심의 축제로 과학에 대한 경험을 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될 계획이다.	11.16.(금)~ 11.17.(토)	송도 컨벤시아	초중고 학생 시민	420-8333



2018 SW 교육 창의 융합 축제

SOFTWARE FESTIVAL

일시 2018.9.12. ▶ 9.14.

장소 송도 컨벤시아 제 1,2홀

주요 프로그램



1	주제별 체험학습관	3일간 54개 주제로 운영
2	SW교육 우수 교육과정 체험관	2018년도 SW교육 연구·선도학교 우수 교육과정 소개 2018년도 SW교과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우수 운영 프로그램 소개
3	인천SW교육지원센터 홍보관	센터 교육프로그램 소개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용 대여 교구 소개 AR/VR 체험/SW교육 코딩 체험
4	전문가 특강	고려대학교 김자미 교수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5	로봇댄스	매시간 정시마다 20분간 로봇댄스(군무) 공연

| 주최 · 주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살아있는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